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이기정 의원

1. 시장 재임시 대양산단 분양 목표

-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시의회, 시민 및 각계 전문가그룹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시장 재임기간 중 분양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동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 재임 1차년도말('15.12월말) : 14.4%
 - 재임 2차년도말('16.12월말) : 23.0%
 - 재임 3차년도말('17.12월말) : 44.9%
 - 임기 만료시점('18. 6월말) : 54.4%

이기정 의원 시정질문

북항 노을공원 주차장 조성

— [사업 개요 (2015 ~ 2016)] —

- 위 치 : 목포시 산정동 1110-13번지(노을공원 앞)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 7,936㎡(2,400평)/265면
- 사 업 비 : 700백만원(국비), 부지 : 무상임대

1 필요성

- 북항에 조성된 휴게·관광 기능의 노을공원에 별도의 전용주차장이 없어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 추진

2 지금까지 추진사항

- '14. 4 :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목포해수청→해수부)
- '14. 10 : 국유재산 사용승인 요청(해수부→기재부)
- '14. 11 : 국유재산 사용승인 불허통보(기재부→해수부)
- '15. 6 : 목포해수청과 주차장 조성 업무 재협의
(기재부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목포시에 관리이관)

3 추진계획

- '15. 8. : 해수부 및 기재부 무상임대 업무 협의
- '15. 12. : 무상임대 및 관리이관 협의 완료
- '16. 12. : 주차장 조성

위 치 도



전 경 사 진



이기정 시의원 '노을공원 주차장 해결 물꼬 터'

322회 임시회서 주차장 관련 시정질의 통해 첫 공론화



최근 외지인과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목포북항 노을공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데는 목포시의회 이기정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목포시는 최근 북항 노을공원 주차장 부지를 기재부로부터 무상확보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공원 조성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주차난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이처럼 노을공원 주차장이 확보된데는 이기정 시의원이 지역구인 북항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이를 반영시킨 것.

이 의원은 지난 9월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인근 기재부 소유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한편, 박지원 국회의원에게도 수차례 건의해 주차장이 조성될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노을공원 앞의 나대지에 총 7936㎡에 265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 부지는 항만청부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실태를 적시하고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 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조성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토지를 양여받아 항만청 국비사업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정 의원은 “이번 기재부의 무상 사용 승인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시화됐다”며, “앞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북항노을공원은 목포해양만만청 당시 청장이었던 김삼열 청장이 국비 130억원으로 면적 2만7000㎡에 공영장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조성됐다.

친수공간을 이용한 해질무렵의 낙조는 장관을 이루며 아름다운장소로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고정언 기자

• 유달산은 도심속 휴식공간!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포에는 랜드마크가 없으니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유달산은 목포의 상징이며, 목포시민의 자랑입니다. 유달산 자체가 랜드마크입니다.

그 자연을 파괴하면서 인공적인 랜드마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달산은 높이 228미터의 작고 아담한 도심속 동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오르고 내리며 즐거움을 찾고 건강을 위해

운동 하고 걷는 산입니다. 쉽고 오르고 쉽게 쉬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지역의

작은 동산입니다. 누가 이런 동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요?

돈구름 같은 숫자와 신기루 같은 목포경제활성화라는 말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뭔가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우리의 유달산이 훼손된다면

우리 세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됩니다.

• 우리의 할 일은 보존입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의 가장 큰 관광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달산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이난영 노래비를 비롯하여 곳곳마다

특색 있는 모습의 바위들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달산은 목포의 근대와 현대의 기록을 담고 묵묵히 목포를 품은 산입니다.

세계는 지금 생태를 복원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치유의 자연으로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에스라고 말할 때 노를 말하면서 자연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산업이 될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동산 유달산의 보리마당과 소요정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바다와 섬을 보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목포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

유달산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목포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이유는 단하나

목포 경제 활성화 ..

하지만 목포시가 예측한 통계는 터무니 없습니다.

경제성마저 거의 없다고

운영자가 이야기 할 정도입니다.

케이블카 없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역상권 독점, 유달산과 고하도 훼손,

경관파괴,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243-3169)

• 작년에 목포를 다녀간 관광객은 어떤 경제효과를 주었나요?

구 분	2014년 목포시	2017년 목포시(추정)	2014년 제주도
관 광 객 수	9,500,000	12,920,000	11,470,000
통계 및 출처	목포시 용역 자료	목포시 용역 자료	제주관광협회

목포시 2014년 통계에 의하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9백50만명입니다.

매월 79만6천명, 매일 2만6천5백명이 목포를 찾았다는 수치입니다.

시민여러분은 이 통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7년 관광객을 1천2백92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이 129만명이 케이블카를 탈거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이 말을 믿습니까?

전국민이 아는 관광도시 제주도도 2014년 관광객이 1150만명이었습니다.

현재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월 80만명에 가깝다면 목포는 지금 경기 불황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제주도 보다 많은 관광객으로 정신 없을 테니까요.

목포시의 2017년도 관광객 추정 통계는 케이블카 수익성을 억지로 맞추려는

터무니없는 숫자 장난일 뿐입니다.

• 시민의 혈세를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24만3천여명의 목포 시민의 세금으로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197억(예산액)짜리

주차장을 지어 준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지어주면 그 수익이 24만 3천여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까요?

최고로 잘 나가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연간 49억여원의 흑자를 내는데

그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의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예전보다 여기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 들었다.

케이블카는 지역에 머무는 체류시간을 줄인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케이블카는 체류형 관광상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스쳐가는 관광객들만 늘어난다면 지역에 남는 이익은 없습니다.

•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케이블카 건설업자, 운영을 책임질 민간업자,

그리고 주차장과 정류장 예정지 주변의 소유자와 그곳에 들어올

소수의 자영업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업체, 땅 소유자가

되겠지요. 목포시민에게 돌아올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560평의 케이블카 정류장에 10~20평 규모의 상가 30~40개 들어선다면

지금 현재 케이블카로 지역경제 활기를 꿈꾸는 분들이 차지할 혜택은 없습니다.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의 유달산만 복원 불가능하게 망치고,

몇몇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 찬성반대측으로 시민들을 양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이 과연 목포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의 1998년부터 목포시장이 새롭게 나올 때 마다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민의 반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거의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름으로

케이블카 설치 찬성 현수막을 걸고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원칙을 깨고 있을까요?

25년 동안 단 한번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름으로 케이블카 설치 찬성 현수막이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순수한 주민자치 조직을 행정의 앞잡이로만 이용하려는 시정당국의 파렴치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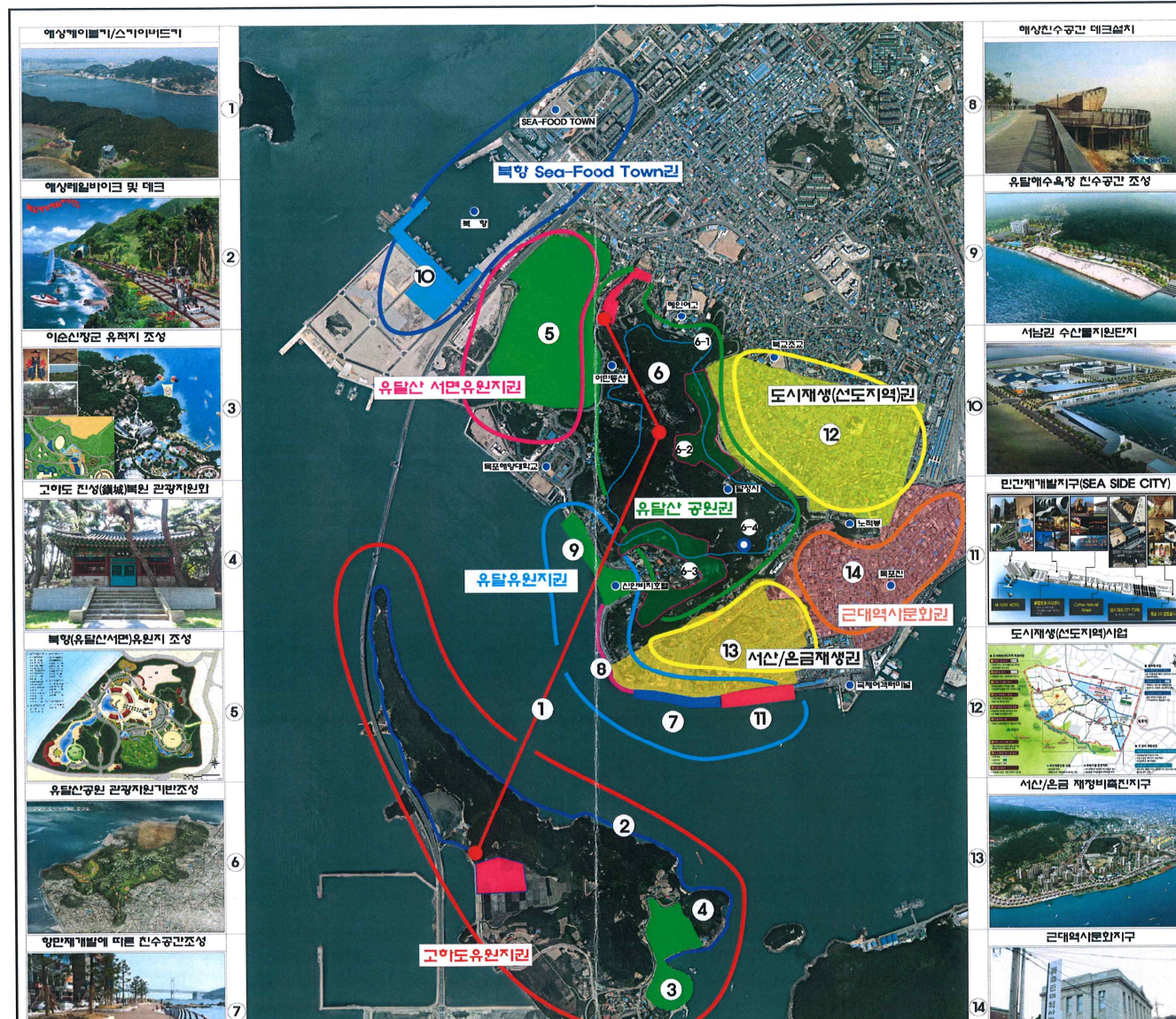
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뭄해결을 위해 강을 막아 썩은 호수로 만드는데 22조원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경제 활성화를 말하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강은 썩고 산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시민여러분 우리까지 한몫해야 될까요?

목포 뉴 관광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구상도



【북항유원지(서면) 개발관련】

【질문요지】

▲ 북항유원지 현재 추진사항 및 앞으로 계획은?

□ 북항유원지 조성사업 현황

- 위 치 : 목포시 죽교동 559-22 일원(어민동산 밑)
- 규 모 : 403,353m²(122,014坪(평))
- 사업비 : 840억원(공공 308, 민자 532)
- 사업기간 : 2016 ~ 2025
- 주요시설 : 타워 펜션 별미촌 유희시설 회타운 파크골프장 등

□ 그동안 추진사항

- '97. 2. :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승인(건설교통부)
- '05. 1. : 북항유원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05. 1. :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수립
- '07. 3.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대형건설업체 10)
- '07. 9. : 해양관광특구 지정
- '07. 12.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건설업체 2, 컨설팅업체 1)
- '10. 11. : 도시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관광사업과⇒목포타워)
- '14. 7. : 2020년 목포도시관리계획 변경(면적 일부 감)

□ 앞으로 추진계획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뉴 관광프로젝트” 계획에 맞추어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